

3D 프린팅 · 드론산업박람회 출범식

전주시, 중국과 공동추진 성공 방안 토론회 진행

전주시와 중국이 미래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3D프린팅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중 산·학·연과 국회 의원, 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 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조직위원회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피아오쯔하오 중국 강소성 창제우 (常州市) 고신구 대표, 서문선영 전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구원도 전자신문 대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리우리강 중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 16명의 조직위원을 비롯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한 조직위는 오는 10월 말 전주에서 열릴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를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산업박람회에는 국제마이에스업 전시관이 운영되고 국제 비즈니스관 구성 및 국제 자본·기술 거래, 국제 컨퍼런스 개최, 국제 교류회 및 정보교류, 미래산업 경진대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정동영 국회의원의 사회로 윤종록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장이 발제한 '미래산업(3D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 산업박람회 출범식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조직위원장(전주 시장)과 국민의당 정동영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중국 강소성 창제우 피아오쯔하오 고신구대표, 전자신문 구원도 대표 등 참석자들이 출범식을 마치고 피어팅을 외치고 있다.

프린팅·드론 등) 발전전략'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홍현 대림화학 대표이사, 최진성 한국 3D프린팅협회 회장, 강철봉 한국전기기술원 박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3D프린팅·드론 및 미래성장산업과 국제산업박람회 성공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가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인 탄소 산업의 활성화와 다양한 전략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시장은 "3D프린팅산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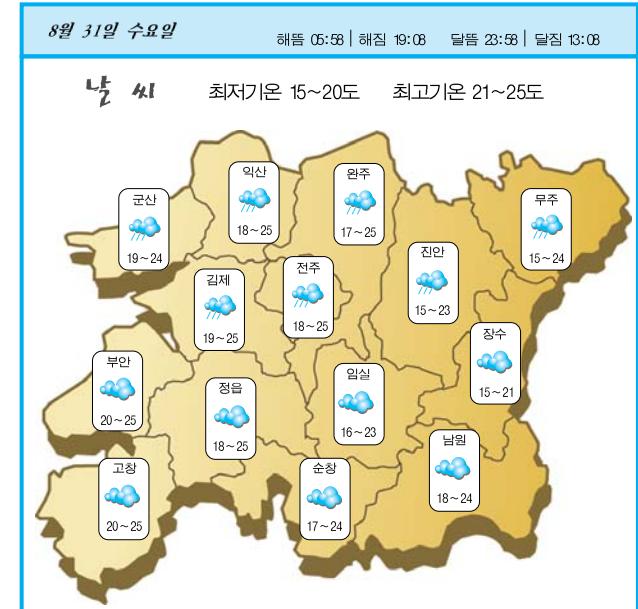
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장과 시제품 제작실·기업지원실, 창의공간 등 3D 프린팅 관련 종합지원체계를 갖춘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가 지난 5월 문을 열고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시장은 "드론산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무인비행 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의 공역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된 이후 중인동 원산체련공원에 편의시설과 공역 인프리를 조성해 드론의 안정성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정보 기반 드론길 구축 프로젝트 시범지역에 전주시 공역이 선정돼 드론 택배 등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산업과 3D프린팅산업, 사물인터넷산업, ICT융복합산업 등 5대 신성장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대입 수시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운영한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입 수시와 관련 공통원서를 한번에 작성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표준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운영한다.

수험생의 원서 작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시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정시 원서 접수 시부터 운영해왔다.

/고민형기자

도내 학교 비정규직 임금 3% 인상

도내 학교 비정규직 임금이 3% 인상되고 상여금과 명절휴가 보전금 등이 오르게 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4차 실무교섭과 39차례의 직종 및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의 한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민형기자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기본급 3%가 인상되며 정기 상여금 연 50만 원을 신설된다.

또 명절휴가 보전금을 기준 연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며 장기근무 기간 금 상한액을 월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고민형기자

KT전북본부, 진로체험공간 '기기토피아 월드'

KT전북본부(본부장 오민수)와 KT 호남네트워크운영본부(본부장 고경우)는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진로체험공간 '기기토피아 월드'를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

KT전북유선운영센터(센터장 정홍성) 운영하는 '기기토피아 월드'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GIGA 인터넷 서비스 VR360, 헬스바이크, 피트니스 스마트에너지, 드론 등 다양한 시연과 체험을 통해 학생

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이 날 개관식에 이어 전주전일중학교 학생들이 기기토피아 월드를 방문해 첫번째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오민수 본부장은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일에 KT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을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전통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협의체, 전주서 첫 포문 열어

5개 기관 공동 참여 '법고창신 협의회' 업무 협약식 개최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 전주에서 첫 포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30일 세미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통문화과학기술 연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순창군장류사업소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 협의회'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법고창신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 기

구단(단장 한호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소장 한현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진수) 등 4개 기관이 새롭게 합류한 순창군장류사업소와 함께하는 5개 기관 업무협의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전통문화 산업체의 ▲기술 혁신을 통해 협력할 경우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크나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법고창신협의회는 이번 협약 외에도 한국문화재재단과 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 인동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재연구소 등과 추가로 업무협력을 체결해 공동연구·학술교류 등을 통해 ▲전통기술 혁신 방안을 창출하고 향후 ▲전통문화·현대과학기술 융복합 연구

/김영재 기자

IMSL-GUN
임실군

예약은 필수!
임실에서 힐링하세요 ~

세심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4-4611, 063-640-2475
- <http://smhu.imsil.go.kr>

성수산 자연휴양림

- 전화 : 063-642-9456~7
- <http://www.sunsusan.co.kr>